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4토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웍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1대 100(재)	00 TV속의 TV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 365(재) 35 인생횡단 울드보이가 간다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청춘 익스프레스(재)	00 MBC 정오뉴스 20 중계방송 국회의원사정문화 (강충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00 SBS 12 뉴스 50 중계방송 국회의원사정문화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20 문화사색	
00 녹화중계 국회 인사청문회 (강충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폭풍 30 꾸러기 식자교실		00 네트웍현장 고항이 보인다
00 이연경의 직언직설	55 튜튼생활제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학습 위키	00 MBC 뉴스 10 뚝?뚝! 키즈쿨 40 꼬마돌도도	00 SBS 뉴스 10 광복70주년 특별기획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을 노래하다)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안데스 산맥)(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정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로봇 트레인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 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2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KBC 토크다큐 (45일간의 기적)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스포터	00 월화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00 충격 실화극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정의연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30 아내가 뿔났다(재)	35 독립영화관 (겨인)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이수 N 램)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50 극한직업
05:30 건강안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꼬마기사 마이코	20:40 다큐 오늘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2015 정춘 인문 강좌	11:10 다큐 오늘	15:40 모피와 친구들	(중국 간쑤성, 문명의 길을 걷다)
07:00 레디디 버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임의 창의력 팽팡(재)	21:30 한국기행
07:30 뽀롱뽀롱 뽀로로	(멕시코 중부고원기행)	16:30 코코코 다코(재)	(가을 추풍령)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00 당동당 유치원1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7:30 뽀롱뽀롱 뽀로로	(남버스, 가족소크)
08:10 Why-최고다 호기심딱지	13:05 지식채널e	17:45 로보카 폴리	22:45 리얼극장
08:20 당동당 유치원2	13:10 갤럭시 프로젝트	18:00 생방송 퓌독! 보니하니1~3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8:30 두다다공(재)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45 신동방송 공룡 슈퍼	24:05 지식채널e(재)
08:40 당동당 유치원3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55 생방송 퓌독! 보니하니4	24:10 EBS 인문학 특강
08:45 코코코 다코	14:0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레이디 비그(재)	25:00 세계 명작극장
09:00 크레임의 창의력 팽팡	14:30 두부바바 눈보리	19:30 EBS뉴스	(폴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알파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 I-알파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 Junior>	13:05 수능 light <영어-독해>
01:40 <문학-알파개념>	14:0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A>
02:30 <미적분 II>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
03:20 <수학 I>	15:40 <미적분 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16:30 <수학 I>
05:00 뉴탐스런 <물리 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06:00 <생명과학 I>	18:10 2016 N제 <국어B>
06:40 <동아시사사>	19:10 <사회문화>
07:30 <윤리와 사상>	20:00 EBS 인터넷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심층적의 수학 I>	21:50 <문학A형>
10:1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영어>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00 <수학A>	23:05 2016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

EBS플러스2

07:00 무역영어 1급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기말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수학 3-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5:50 <수학 4-2>
08:30 AT자격 시험대비강좌	16:20 <수학 5-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수학 6-2>
09:10 TV중학 <국어(1)(2)>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수학 3(상)>
09:50 <수학(1)(상)>	17:50 다큐 오늘 <수학 3(상)>
10:30 <역사 2>	18:00 TV중학 <국어(5)(6)>
11:10 <국어(3)(4)>	18:40 <수학 2(상)>
11:50 <수학 2(상)>	19:20 필독중학 세계사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강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중간·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 1-2>	22:00 중간·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 2-2>
14:30 등업신공 <수학 2(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음 9월 29일 庚寅)

子	48년생 근원이 확실하면 파생되는 것도 실효적이다. 60년생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72년생 만남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많았다. 84년생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52	午	42년생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니 패배하지 말라. 54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66년생 필수적인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 세밀하게 살펴라. 78년생 가장 최근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1, 46
丑	49년생 이번까지 살펴 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61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73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85년생 목표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8, 62	未	43년생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순조롭다. 55년생 처신하기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67년생 빚심한다며 낙오할 수밖에 없다. 79년생 과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47, 35
寅	38년생 대단한 일을 접하게 되리라. 50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른다. 62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74년생 보류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86년생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변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4, 40	申	44년생 오랫동안 염원했던 것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56년생 기쁨이 서투르다면 평가가 절하될 수밖에 없으리라. 68년생 무의미하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일상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0, 23
卯	39년생 소름돋았던 점이 없는 지 살펴 볼 일이다. 51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라. 63년생 실속 있는 것이 유익하다. 75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87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행운의 숫자 : 19, 14	酉	45년생 느긋오르만 판단해 건너뛴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57년생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 69년생 한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느니라. 81년생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불편은 감수하라. 행운의 숫자 : 24, 70
辰	40년생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마음을 기다리고 자제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니 잘 활용하라. 64년생 미리 대처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 76년생 몸이 밴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6, 30	戌	46년생 불가피하다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58년생 참된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70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82년생 겉모습과 달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1, 59
巳	41년생 해복은 것들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청산하라. 53년생 가장 상식적인 방안이 합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65년생 인화야말로 만사를 성사시키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77년생 유념하여야 뒤끝이 없다. 행운의 숫자 : 15, 33	亥	47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해야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59년생 유연하게 대응해야 수용할 수 있느니라. 71년생 다양한 사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83년생 일정한 기준과 체계 하에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79,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결” ☎010-9790-8237

지금은



시대

‘삼시세끼-어촌편2’ 지상파 잡고 시청률 1위 ‘응답하라 1988’ 가세해 시너지 효과 폭발 ‘SNL코리아’ 이태임편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삼시세끼-어촌편2’ 하나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응답하라 1988’이 가세해 시너지 효과가 폭발했다. 여기에 ‘SNL 코리아’까지 자체 최고 시청률을 냈다. tvN 전하다. 케이블채널 tvN이 지난 6~7일 그야말로 안방극장을 휘어잡으며 존재감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인터넷 연예기사의 절반 이상이 이들 세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다.

차승원-유해진 콤비와 함께 돌아온 ‘삼시세끼’의 어촌편2가 금요일 밤 지상파를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응답하라 1988’ 시리즈의 3탄인 ‘응답하라 1988’이 금토 드라마로 편성되면서 ‘삼시세끼 어촌편2’의 열기는 토요일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SNL코리아’가 논란 속에 ‘물의 연예인’의 대표적인 배우 이태임을 내세운 도발적인 한방은 ‘체리 온 더 케이크’가 됐다.

지난 주말 최고의 화제작은 뭉치뭉치해도 ‘응답하라 1988’이었다. 큰 기대 못지 않게 이력저런 논란과 우려의 시선 속에서 출발했지만, 푸경을 연 ‘응답하라 1988’의 위용은 당당했고, ‘지적질’할 틈을 주지 않았다. 6~7일 오후 7시50분에 방송된 ‘응답하라 1988’은 1회 6.7%에 이어 2회에서는 7.4%를 기록하며 tvN의 간판 드라마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갔다. 2회의 순간 최고 시청률은 8.5%까지 올랐다.

전작인 ‘응답하라 1997’과 ‘응답하라 1994’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된 ‘응답하라 1988’은 1990년대와는 질적으로, 또 깊이로도 차원이 다른 19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연기력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했던 헤리가 완벽하게 주인공 성덕선에 빙의된 모습을 보여주며 단숨에 논란을 잠재웠고,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던 다른 주인공들도 살아숨쉬는 캐릭터 덕분에 1~2회 만에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또 전작들과 달리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의 배우를 분리해서 캐스팅한 것도 이 드라마가 앞선 두 시리즈와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회에서는 성덕선의 성인 역으로 이미연, 2회에

서는 성덕선의 남편으로 김주혁이 각각 등장하며 2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해줬다. 이미연과 김주혁 모두 1971년생으로, 극중 상문동 골목 친구 5인방과 나이가 같다는 ‘고흥’도 이 드라마를 보는 또다른 재미다.

제작진도 고백했듯, 1990년대를 복원하는 것과 1980년대를 복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소품을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로, ‘응답하라 1988’ 시리즈 특유의 ‘깨알 복고’를 위해서는 제작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고흥’의 결과는 감동으로 이어졌다. 화면 구성구석에 놓인 온갖 소품은 마치 박물관에 온 듯 1980년대를 오늘로 소환했다.

‘응답하라 1988’ 1회에 이어 6일 밤 9시45분 방송된 ‘삼시세끼-어촌편2’ 5회의 시청률은 평균 12.3%(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순간 최고 13.7%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경쟁작인 SBS TV ‘정글의 법칙 인 사모아’는 11.6%, KBS 2TV ‘나를 돌아봐’는 6%였으며, 이날 7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막을 내린 MBC TV ‘세바퀴’의 시청률은 4.9%에 그쳤다. 지난달 9일 13.9%로 출발한 이래 매주 지상파 3사의 예능 프로그램을 모두 누르며 질주 중인 ‘삼시세끼-어촌편2’는 차승원의 무심한 듯 하면서도 관련한 요리쇼와 농경스리우면에서도 성실한 일꾼 유해진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키포인트다. 여기에 ‘영원한 머슴’이자 착한 심성의 손호준, 매혹 새로운 양념의 맛을 주는 게스트가 가세해 서울에서 무려 12시간을 투자해 도착할 수 있는 외딴섬 만재도에서의 삶을 부럽게 만들고 있다.

‘응답하라 1988’ 2회에 이어 7일 오후 9시45분부터 방송된 ‘SNL코리아6’는 평균 2.6%, 최고 3.2%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의 호스트는 이태임.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 육설 파문과 진실 공방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이태임은 이날 방송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행동을 패러디했다. 이태임은 콘트 ‘프로젝트 B’에서 끊임없이 육설을 요구하는 누리꾼에게 눈물로 육설하며 ‘맛깔나리’도 외쳤고 콘트 ‘남극일기’에서는 유세운, 정이랑 등이 그의 앞에서 “난 추우면 안된다”, “어디서 (통닭) 반 마리나” 등의 대사로 이태임의 스탠들을 희화화했다. 누리꾼들은 “‘SNL코리아’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배우 황정민(왼쪽)과 정유제가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히말라야’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사히 촬영 끝내고 안도감에 눈물 ‘핑핑”

영화 ‘히말라야’ 엄홍길 대장 役 황정민

배우 황정민이 영화 ‘히말라야’ 촬영을 끝내고 눈물을 터뜨렸다고 털어놨다.

황정민은 9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히말라야’ 제작보고회에서 “큰 사고 없이 촬영을 잘 마치고 나자 눈물이 터졌다”면서 “다들 힘들었고, 특히 스태프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이동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개봉하는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고자 목숨 건 여정을 떠나는 산악 원정대의 도전을 그린 영화다.

2005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한 고(故)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등반길에 오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원정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극제시장’ 윤제균 감독이 제작자로 나섰고, ‘해적:바다로 간 산적’, ‘맨싱클’을 연출했던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엄홍길 대장 役에 황정민을 비롯해 정유, 조성화, 김민권, 라미란, 김원해, 전배수 등이 영화에 출연했다. 황정민은 “우리나라에 산악 영화가 거의 없어 궁금했다”며

“막상 해보니 전혀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8000미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에 올라간 것처럼 힘들었다” 덧붙였다.

각각 산악인 엄홍길과 박무택을 연기한 황정민과 정유는 영화 ‘사생결단’(2006)에서 선우배 형사로 호흡을 맞춘 이래 9년 만에 ‘히말라야’에서 선우배 산악인으로 다시 만났다.

정유는 “제일 힘든 건 두통이었다”며 “(고산병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예민해서 자고감에 빠져 있던 날이 많았다”고 전했다.

극 중 이동규 役을 맡은 배우 조성화는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천만 영화’였다”며 “게다가 (주연) 배우가 황정민, 연출이 이석훈 감독. 제작자가 윤제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모두 시간이 안 돼 못 했는데 이것마저 일정 핑계 대고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영화는 딱 보면 관객 1000만명이 보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감독과 배우들은 모두 산악인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도 마치 캠프장처럼 꾸며져 이색적이었다. /연출뉴스